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소개의원 : 구미시의회 김재우, 권재욱 의원

2. 청원사유(내용)

- 시는 전국체육대회 중심시설로 박정희체육관 주차장터에 복합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임. 지상2층 규모로 지하주차장, 볼링경기장,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며, 시가 직영할 계획임.
- 중소도시 수요에 전혀맞지 않는 40레인의 전국 최대 볼링경기장이 건립되면 구미시의 10곳에 불과한 볼링장은 문을 닫게 됨. 지역 볼링장은 과잉경쟁으로 이용료가 전국 최저 수준이며,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
- 볼링경기를 인근지역 및 구미시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전국체전을 진행할 수 있음. 충분한 대화와 근거를 제시하여도 시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전혀 반영치 않고, 볼링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못하였음.
- 서약서 첨부[전국체전 볼링경기를 구미볼링장(8곳)으로 활용 시 무료대관 및 봉사실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해당부서 의견 : 전국체전추진단

- 국제경기 또는 국내공식경기 수행을 위한 볼링장 적정 규모는 32~36레인 이상이고, 전국체육대회는 최소 20레인 이상이 필요하나 관내에는 최대 16레인의 볼링장 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볼링인구 증가, 볼링선수 훈련장 마련, 공식경기 수행을 위하여 국·도비(65%)가 지원되는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이 필요함.
- 볼링장 건립 취소는 그 동안 유치확정 후 1년 3개월에 소요된 행정절차를 다시 관련부처와 변경협의 승인을 받아야할 경우 2020년 10월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워 계획변경 불가.
- 2017년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구미시민들이 향후 하고 싶은 운동 선호도 조사에서 볼링이 2위(①수영 ②볼링 ③배드민턴 ④견기순)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볼링장 건립 계획으로 2020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하여 구미시가 주개최지로 확정되어 복합스포츠센터 내 볼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됨.
- 구미시는 사설볼링장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 이용 위주로 볼링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주클럽 배제로 사설볼링장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 청원내용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민원인들의 주장과는 의견차가 있으나,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추진되어야 함.

4. 검토의견

○ 본 청원의 견은,

- 구미시가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대회 운영을 위해 244억원(국비65, 도비83, 시비96)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 내에 40레인의 볼링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구미시에서 타당성 조사, 중앙 투자심사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청원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 볼링장 건립에 따라 향후 사설볼링장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국체전 시 볼링경기 유치의 필요성과 시립 볼링장 건립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